

# 수입차 판매 역대 최대 '쾌속 질주'...벤츠 7만대 돌파

지난해 누적판매량 25만대 넘어 11.8% ↑  
국내업계 내수 판매 현상유지와 대조적  
벤츠 E300 4MATIC 베스트셀링카 1위

지난해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내수 판매가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전남 판매량도 증가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단일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연간 7만대 판매를 달성하는 등 국내 시장을 독주하고 있다.

◇누적 판매량 25만대 돌파, 역대 최대=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26만705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23만3088대)에 비해 11.8% 증가했다.

수입차 판매가 25만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6.7%로 2015년의 15.5%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은 ▲2014년 19만6359대 ▲2015년 24만3900대 ▲2016년 22만5279대 ▲2017년 23만3088대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판매 재개와 신차 출시 효과, 할인 프로모션 등이 맞물리면서 판매 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수입차업계는 분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국내 완성차업계의 국내 승용차 판매대수는 129만7937대로,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확인한 수입차 시장의 성장세가 드러난다.

◇벤츠 독주, 연간 7만대 판매 달성=메르세데스 벤츠는 압도적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수입차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벤츠는 지난해 연간 7만798대를 팔아 전년도(6만8861대)보다 2.8% 늘면서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의 점

유율도 27.2%를 차지했다.

벤츠 판매량은 4만6994대(2015년)→5만6343대(2016년)→6만8861대(2017년)→7만798대(2018년) 등으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특히 2위인 BMW(5만524대)와도 2만대 이상 격차를 벌리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뚜렷하다.

벤츠 인기는 베스트셀링카 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벤츠 E300 4MATIC으로 9141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올랐다. 벤츠의 E300, E200도 연간 베스트셀링카 10위에 오르며 판매량 증가에 한몫을 했다.

지난 12월 한 달 판매량만 보면 무려 6개 모델이 월간 베스트셀링카 10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벤츠가 세단 E클래스 기본형을 기존 'E200'에서 'E30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라인업 재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외 전체 판매량에서는 BMW는 전년 대비 15.3% 급감하면서 2위를 지켰고 도요타가 전년보다 43% 급증한 1만6774대로 3위에 올랐다.

◇광주·전남 판매량 늘고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지역별 수입차 판매량도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5386대가 팔려 전년도(4977대)보다 8.2%(409대)가 늘었다. 전남지역 수입차 판매량도 지난해 4512대로 전년(4420대)보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지역에서 5만4915대가 팔려 21.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4만5429대), 인천(4만3130대), 부산(3만1917대), 대구(2만2323대), 경남(1만3999대) 순이었다.

BMW 디젤 차량 화재 등으로 디젤차 판매가 감소한 반면, 친환경차로 분류됐던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한 점도 지난해 수입차 시장의 특징이다.

지난해 디젤 차량은 10만6881대(점유율 41.0%)가 팔려 가솔린(12만3273대·점유율 47.3%)보다 적게 팔렸다. 2017년에는 디젤 차량 점유율은 47.2%로, 가솔린(42.9%)을 앞섰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3만360대가 신규등록돼 전년(2만2847대) 대비 32.9% 늘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해 연간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오른 메르세데스 벤츠 E300 4MATIC.

### 2018 연간 수입차 신규 등록 현황

〈단위:대〉			
지역	합계	지역	합계
경기	54,915	제주	5,490
서울	45,429	충남	5,771
인천	43,130	전남	4,512
부산	31,917	전북	4,754
대구	22,323	충북	4,142
경남	13,999	강원	3,973
대전	5,304	울산	2,590
경북	5,588	세종	1,482
광주	5,386	합계	260,705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제공〉



이탈리아 수입차 브랜드 마세라티의 르반떼.



2019년형 티볼리아머



한국GM 쉐보레 이쿼녹스.

## 가격 내리고 골드바 선물...자동차업계 판매량 늘리기 안간힘

기아차, K7·쏘렌토 등 구매 30만원 지원  
쌍용차, 골드바 증정·노후경유차 대차 할인  
한국GM, 이쿼녹스 최대 300만원 인하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새해 벽두부터 차량 가격을 인하하는가 하면, 다양한 할인 정책을 내놓고 판매량을 늘리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기아차는 '노후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이상 운행한 경유 차량을 말소 등록(폐차 또는 수출)하고 기아차 신차로 바꾸면 차량 가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등 대표 차종 구매 시 30만원

을, 카니발, 봉고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10년 경과 노후경유차 개소세 70% 감면' 혜택이나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쌍용차도 새해를 맞아 신차 구매 고객에게 황금돼지 골드바를 선물하고 노후경유차를 대차하는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클린 익스체인지 100'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G4 렉스턴에 대해서는 구매 후 차량가격 30% 이상의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000만원을 지급(본인 과실 30% 미만 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달부터 선수율 제로에 3.9% 60개월 할부를 새롭게 운영한다. 티볼리 브랜드(아머&에어) 구매 고객 2019명을 대상(선착순)으로 황금돼지 골드바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한국지엠(GM)도 주요 차종의 가격을 인하하며 판매 반등에 나선다. 한국GM 쉐보레는 지난 1일부로 스파크, 트랙스, 이쿼녹스, 임팔라 등 주요 제품의 판매 가격을 새롭게 적용했다. 스파크는 트림별로 LT 50만원, 프리미어 15만원을 각각 내렸고 트랙스의 경우 LS는 30만원, LT-LT 코어는 65만원, 프리미어는 84만원을 하향 조정했다.

이쿼녹스는 LT를 190만원, 프리미어는 300만원을 인하, LT는 3200만원대, 프리미어는 35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임팔라는 전 트림을 200만원 내렸다.

수입차 업계도 새해 고객들을 겨냥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탈리아 수입차 마세라티는 이달 말까지 전국 10개 마세라티 매장에서 신차를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추첨, 순금 5돈 황금돼지를 증정하는 '해피 2019'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행사 기간 전시장에 찾는 모든 고객에게 포춘퀴를 나눠 주고 쿠키 속 메세지에 따라 골프백, 명함지갑, 텀블러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펼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산 르노삼성·수입 렉서스 1위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센터 만족도 조사

국산 자동차 가운데에는 르노삼성, 수입 자동차 가운데는 렉서스 서비스센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서비스센터 이용자 1268명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상위 11개(국산 5개·수입 6개) 업체의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산 자동차 가운데는 종합만족도 3.72점을 받은 르노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쌍용자동차가 3.6점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3.59), 한국GM(3.56), 기아자동차(3.54)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렉서스가 종합만족도 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메르세데스 벤츠(3.67), 포드(3.61), BMW(3.48), 아우디(3.43), 폴크스바겐(3.21) 순이었다.

2015~2017년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비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916건으로 등록 대수 10만대당 건수로 환산하면 현대자동차가 1.4건으로 가장 적었다.

렉서스가 2.2건, 기아자동차가 2.4건, 르노삼성이 8건 등이었다.

/연합뉴스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